

“광주기업들 美 진출 돕겠다”

美 샌안토니오市 한인회 한현구 회장

“광주시와 미국 샌안토니오시 간 경제·문화·교육 등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 광주를 찾은 한현구(51) 재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한인회장은 11일 광주시 금수장 호텔에서 시와 전남·북 주관으로 열린 ‘호남향우회장 및 기업인 초청행사’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회장은 샌안토니오 ‘인카네이트대학교’(UIW·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와 자매 결연을 맺은 조선대와 교환교수·분교설립 문제 등 양 대학 간 상호교류 협정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또 박광태 시장 등을 만나 경제·문화협력 교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두 도시는 지난 1984년 자매 결연을 맺었으나 사실상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광주 남광건설 김대표가 샌안토니오시를 방문해 한인회 심터인 ‘팔각정’을 신축해 주기로 하면서 그동안 막힌 물꼬가 이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초 조선대 김기숙 무용과 교수와 학생 10여 명이 한인회 초청으로 ‘UIW’에서 고전 무용 공연을 펼쳐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현재 양 도시 간 경제·문화·교육 등 상호 협력 토대는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한인회는 광주지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을 적극 돕는 한편 양 대학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도 경제 교류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화·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고창 출신인 한 회장은 지난 1987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올해 첫 한인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몽골 최우수 교육자 훈장’ 수상 고 형 일 한국교육개발원장

“몽골 교육열, 우리 60년대와 비슷해요”

“‘몽골 최우수교육자 훈장’은 저에게 과분한 영광입니다. 제가 뛰어나 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력과 역량, 뛰어난 동료들의 도움으로 받았으므로 이 영광을 나누겠습니다.”

25년간 전남대서 후학 지도

지난 5일 몽골정부로부터 몽골 발전에 공로가 큰 인물에게 주는 ‘최우수교육자 훈장’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 고형일 원장은 수상의 영광을 주위사람들에게 돌렸다.

고 원장은 지난 1992년 한국-몽골 간 교이 후 1994년부터 14년 동안 한국과 몽골 양국 간의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정책연구, 교류협력

증진과 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해 몽골의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1994년 몽골 교육개발원과 한국 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두 나라의 교육분야에 대해 고민을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연구에 참여한 고 원장은 “몽골의 교육수준은 우리나라 60년대 시절과 비슷하지만 부모들의 열의만큼은 대단하다”고 말했다.

지난 1980년부터 전남대 사범대학 교수로 서 학생들을 지도해오다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한 고 원장은 지난 8월 몽골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 23개국 31명의 석학들과 아시아교육혁신센터 결성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교육협력’을 위한 2007 서울

선언’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 원장은 “몽골 교육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몽골 교육행정가들을 초청, 교육계획 수립 및 정책집행 기술을 연수시키고 있다”

원격 교육·유아 보육 등 컨설팅

며 “고위공무원·대학관계자·교육전문가들과 몽골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몽골 EFA 국가교육정책 수립 ▲유아 보육 및 교육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원



격교육 ▲중등교육 발전방안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몽골은 시와 같은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매우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 등 배울 점도 많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교육 발전에 힘쓰겠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고 6회 졸업생, 반세기 추억 나눈다

‘고회’ 앞두고 DJ센터서 졸업 50주년 흥커밍데이

‘고회(古稀)를 눈 앞에 두고 졸업 반 세기를 맞다.’

광주일고와 함께 광주 인맥의 큰 줄기를 이루는 광주고 6회 동문들이 올해로 졸업 5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3일 오후 5시에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광주고 졸업생들, 그 중에서는 6회가 두드러지는 것은 두터운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전쟁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1954년에 입학, 1957년 443명이 졸업했다. 1938년생이 대부분으로 내년 고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당시 서울대 합격생만 87명을 배출하면서 ‘광주고’를 ‘호남의 명문’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광주·전남에 160여명, 수도권에 170여명, 해외에 20여명이 살고 있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숫자가 10년 전 20명에서 70여명으로 불어

난 것은 일흔을 앞둔 이들의 나이를 실감케 한다.

광주고 6회는 사법·행정·외무고시 합격자 9명, 군 장성 4명, 장관 2명 등을 냈고, 학계·의료계·재계·교육계·인문계·금융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정계의 대표적 인물로

당시 서울대 합격자 87명... ‘호남 명문’ 초석 다져 박상천·김양배·강신석씨 등 정·관·종교계 활약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있으며 이재우씨는 전남도의회 건설위원장을 역임했다.

법조계에는 광주고법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천경승, 전 광주법사회장 심란섭씨 등이 있으며 작고한 김남욱씨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냈다.

관계에는 광주직할시장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김양배씨가 대



〈박상천 민주당 대표〉 〈김양배 전 장관〉 〈강신석 목사〉

표적 인사다. 이 밖에 전 무역진흥공사 부부장 임인주, 목포시장과 광주시 부시장을 지낸 안재호, 전 광주부무청장 김중걸씨 등이 있으며, 학계에는 정진위 연세대 전 부총장을 비롯해 이호준, 최형운, 김재홍, 전순배 등이 있다.

의료계에 오성렬(고창병원), 박찬영(송천병원), 부영철(부천 우리병원), 씨 등 20여명이 포진하고 있고,

제일은행 호남본부장을 지낸 박해룡, 조병수 전 한국은행 발원부장 등이 금융계 인사다. 김태섭(국방대학원장), 장종현(1군 군수사령관), 김창시(화학감), 문태식(합동참모부) 씨 등이 장성까지 오른 광주고 출신이며, 교육계 인사로는 광주시 서구교육장을 역임한 이정우,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이상익씨 등이 있다. 또 실업계에는 이두호 신촌결선회장, 한국로스트웍스와 옥산실업을 창업한 장세풍, 김양근씨가 있다. 강신석 목사와 유종호 목사 등은 종교계에서 활동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在중국 동포선수단 이끌고 고향 찾은

‘조선대 출신’ 정홍용 총감독

“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기가 북경올림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일 정홍용 중국동포 선수단 총감독을 만난 곳은 그의 모교인 조선대 축구장. 체전 참가를 위해 중국동포 선수단 109명을 이끌고 광주를 찾은 정 감독은 순천이 고향인 전라도 토박이다. 정 감독은 조선대 체육학과를 수석 졸업한 직후인 1996년 2월 운동의학을 배우기 위해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중국 최고의 체육교육기관인 북경체육대학교를 입학한 그는 5년 동안 한국국제학교에서 체육교사 생활을 하며 학비를 충당했다. 그의 부인 최혜정(35)씨도 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며 낯선 땅에서 두 딸을 기르는 데 힘을 보탰다.

정 감독은 현재 재중국대한체육회 사무처장직과 대한체육회 북경을 립과 연락사무소 연락관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한국 전초기지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중화사상으로 무장된 중국이 인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략종목이 중국과 많이 겹치는 만큼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정 감독이 이끄는 중국동포 축구팀은 이날 일본동포팀을 3:1로 격파, 지난해 당한 5:0 참패를 설욕한 것이다.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는 중국동포 선수단은 이번 체전을 위해 약 3개월 동안 맹연습을 해왔다.

정 감독은 “고향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내년 북경 올림픽이 끝나면 광주로 돌아와 현장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용준을 내 손안에’... 日서 ‘BYJ 휴대전화’ 등장



배용준과 늘 함께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휴대전화 등장한다.

배용준의 일본 소속사인 IMX는 올 겨울 ‘BYJ 휴대전화’(가칭)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일 ‘BYJ 휴대전화’는 기계 본체는 아니며 기존의 본체에서 클리 한번으로 대기화면과 메뉴 배경화면 및 아이콘, 그리고 각종 착신음과 알람소리 등 본체의 기능이 모두 배용준 사양으로 변신하는 서비스라고 운영을 맡고 있는 액셀측은 설명했다.

광고6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07년 10월 13일 오후 5시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4층)
\*광주시 상무지구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신홍대씨 장남 승업군 김석주(전 목포대 교수)씨 장녀 윤희양=13일(토) 오후 1시10분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양병규(광주 서석중 교장)씨 막내 진철군 전용호(광주시 남구 방방 2동사무소 사무장)씨 장녀 인경(광주 무등도서관)양=13일(토) 오후 1시 광주중앙교회.

▲김중재(전 전남대 대학원장)씨 장남 태형군 권용문씨 장녀 은경양=13일(토) 오후 3시 서울시 청담동 리베라호텔 3층 몽블랑홀.

▲니문중(전 주) 건설설비 대표이사)·김해순(광주 서초동 교사)씨 장남 건웅(광주 광산구청)군 차재화(광주일보 담당주제기자)·박선례(광일솔밭갈비)씨 장녀 선화(광주 운리초교 교사)양=13일(토) 오전

11시20분 꿈의 궁전 웨딩홀 1층 에 메탈드홀.

▲김삼선씨 막내 성원군 김동현(전 전남도청)씨 장녀 춘희양=13일(토) 오전 11시40분 삼영웨딩홀 3층 다이아몬드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 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

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술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술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윤호) 월례회=12일(금) 오후 6시30분 암마랑부대. 512-7181

▲복성중 제 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월례회=12일(금) 오후 6시30분 함회식당. 225-3233

▲복성중 제 13회 동창회(회장 박중우) 월례회=13일(토) 오후 6시30분 바다와 육지. 525-7900

▲송원고 총동문회 제 31차 정기총회 및 한마음축제=14일(일) 오전 8시30분 송원대 운동장. 011-212-2900

▲재광 법남 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모임=15일(월) 오후 6시 일송정. 525-9977

▲효동 32회 동창회(회장 김성곤) 월례회=16일(화) 오후 7시 화니 공

나물 삼겹살. 523-2550

▲복성중 제 16회 동창회(회장 강해룡) 월례회=16일(화) 오후 6시30분 송원 회관. 223-0028

▲광주대 총동창회(회장 김문세) 임시총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행사=19일(금) 오후 6시30분 유포아 웨딩홀 4층 대연회장. 369-6882~3

▲광주교대 부속초교 제 39회 동창회 모임=20일(토) 오후 6시 율동도 신물화. 372-6191

증진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청년이화회(회장 이진우) 월례회=16일(화) 오후 7시 지원 회의실. 225-5631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모임=18일(목) 오후 7시 광명해물가든. 010-6688-8983

향우회

▲재광 장흥군 향우회(회장 김우

식) 월례회=12일(금) 오후 6시30분 그랜드호텔 11층. 011-611-6208

모임

▲동신대 건축학과 20주년 기념행사=13일(토) 오후 6시 허딩관 관광호텔.

부음

▲신속수씨 별세 정재욱(전 곡성농업기술센터 과장)·재혼(전 한국통신 과장)·재혼(한국폴리텍 V대학 교수)·재현(광주일보 논설위원)·재

석(남원 남광철재 이사)·재인씨 모친상 김정길(남원 남광철재 대표)씨 빙모상=발인 13일(토) 그린장례에

식장 제 9분향소. 250-4409

▲임효식씨 별세 춘섭(여천 NCC 재경팀장)·연섭(자영업)·형섭(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박사)씨 부친상 도재기(경향신문 국제부 차장)·강성준(서울지하철공사 주임)씨 빙부상=발인 12일(금)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1-759-9090

▲곽정준씨 별세 곽태운(일동제약 상무)·태기(개인사업)·태웅(개인사업)씨 부친상=발인 12일(금) 여수 장례식장 1분향소. 061-688-4444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 ‘명예시인’ 됐다

박성훈 JET 재능그룹 회장이 11일 명예시인이 됐다.

한국시인협회(회장 오세영)는 한국현대시 100년과 한국시인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시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서 박 회장에 명예시인증을 수여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1년부터 전국시낭송경연대회를 개최해 명시 보급과 시사상운동 전개로 아름다운 시문화를 정착시켜 왔으며, ‘재능시낭송협회’ 활동 지원을 통해 시낭송공연, 시낭송 CD, 시낭송 이문서 발간 등 시사상 변화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16일 광주지방토론회 개최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언론중재 제도의 활성화 방

안 모색-언론 소비자 입장 중심’으로 주제로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지방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사

◆푸르덴셜투자증권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

▲목포지점장 김명곤